전주매일 CMYK

▶▶ 매일 INDEX

2면
도-전주-완주 상생협력 4차 협약

전주매일

2023년 2월 28일 화요일 (음 2월 9일) 제3212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곽경문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전북을 국가 농생명산업 수도로'

도, 비전 선포식

➔ 관련기사 3면

2026년까지 2대 목표 16대 핵심과제 추진

7조3800억원 투입 산업 고도화 등에 초점

김관영 도지사와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27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농생명산업수도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전북도가 대한민국 농생명산업 수도로 우뚝 서기 위한 발걸음을 본격 내딛는다.

전북도는 27일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김관영 도지사와 도의회, 전북 R&D 기관, 농업인단체, 농식품기업, 시군, 전문가 등 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대한민국 농생명산업 수도, 전라북도' 비전 선포식을 개최하고 전라북도 농생명산업 수도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을 발표했다.

'육성계획'에는 농생명산업 수도의 2대 목표 6대 전략 16대 핵심과제 및 기본개념, 비전 및 전략, 추진체계 등이 담겨 있으며,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7조3,800억원을 투자한다.

전북도는 오는 2026년도까지 농업의 전·후방산업 연계로 '혁신성장'을 선도해 식품기업 매출액 7조원 시대를 개막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농민행복' 실현을 통해 농가소득을 6천만원대로 진입시키겠다는 공격적인 2대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6대 전략으로 먼저,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통한 스마트 교육과 농지 공급 및 스마트팜 창업 지원,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경영지원 강화 등 전북형 청년농 창업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해 전국에서 청년이 창업하고 성공하기 가장 좋은 지역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농식품기업 창업과 단계별 성장을 지원하는 체계 구축과 공공급식·로컬푸드 등 관계시장을 확대하고, 농산물 유통·물류의 다변화, 수출역량 강화 등 다양한 수요 창출을 통해 농가소득을 높여갈 계획이다.

식품, 종자, 미생물 등 농생명 혁신클러스터 고도화와 기술혁신 및 벤처창업 활성화를 통해 그린바이오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만금 신항만, 신공항 등과 연계한 지역의 농생명 클러스터를 'K-푸드 메카'로의 집중 육성 등 농생명 신산업 확장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 미래 먹거리를 창출한다.

이어, 지역특화품목 육성 및 작부체계 개선, 스마트화·전문화·조직화를 통한 농가소득 안정 지원과 친환경·저탄소 농업 확산 및 환경친화형 사육환경 개선 등을 통해 위기에 강한, 지속가능한 농업구조로 전환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소득체계 개편 및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확대 개편을 통해 농가소득과 경영안정을 지원하고, 기상이변과 각종 재해위험으로부터 모두가 안심하고 농사짓는 영농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생활권 중심으로 주거·사회서비스 등 종합 인프라를 지원하고, 맞춤형 생활·경제서비스 및 주민주도의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과 도·농교류 및 귀농·귀촌 활성화를 통해 생활인구를 대대해 누구나 살고 싶고 활력이 넘치는 농촌사회를 만들어 간다는 방침이다.

도는 또한, 2대 목표 실현과 6대 전략 추진을 위해 기존의 추진체계를 개편하고 체계화하여 운영한다.

먼저, 전국적으로 협치 농정의 모델 역할을 수행한 삼락농정위원회의 정신은 계승하고, 세분화된 분과 통합·운영, 부서별 책임강화와 농정 현안 TF 구성·운영 등 개선사항을 반영한 농어업·농어촌위원회로 전면 개편해, 효율적인 농정 방향 제시와 농정 현안에 대응할 계획이다.

기존 농생명연구협의체의 6대 분과를 확대 운영해 위원회 아래 총괄기획위원회를 신설하고 새만금농생명,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말산업 등 4개 분과위원회로 구성, 현안 해결형 아젠다 발굴을 비롯해 국책사업 발굴 등의 기능을 강화하는 농생명혁신성장위원회로 개편한다.

김관영 도지사는 "2022년은 대한민국 농생명산업 수도의 청사진을 그리는 한해 였다"며 "올해부터는 전북이 가지고 있는 종자, 미생물, 식품, 동물용 의약품 등 농생명 신산업 고도화와 새만금 농생명용지에 신공항, 신항만, 철도 등 트라이포트와 연계한 새만금 글로벌 푸드허브를 구축하고 미국·일본·중국 중심에서 러시아·베트남·인도네시아 등 신시장 창출 등을 통해 전북도를 대한민국 농생명산업을 선도해 가는 지역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교육부 RIS사업 예비 선정

전북도, 부산·제주와 함께… 내달 초 최종 확정

전북도가 교육부 공모사업인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이하 RIS)'에 예비 선정됐다.

27일 교육부의 결과발표에 따르면 전북도는 부산, 제주와 함께 △핵심분야 선정, △사업 추진체계 구성, △사업계획 수립·관리 방안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개요 등을 평가한 RIS 사업에 예비 선정됐다.

교육부는 앞으로 예비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3월 초에 RIS 신규지역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는 예년과 같이 예비 선정 및 이의신청 절차를 두고 있지만 큰 변수가 없는 한 전북도의 최종 선정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5년간 국비 1,500억원, 지방비 645억원 등 총 2,145억원이 '전북지역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에 투입될 전망이다.

전북도는 RIS 사업을 통해 지역 핵심사업과 연계된 도내 대학 학사구조 개편 및 공유대학 등 인재양성에 나서고 이를 기반으로 기업 유치 등 일자리 창출, 지역 정주로 이어지는 지역발전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이번 공모를 위해 지난해 10월 RIS 핵심분야로 미래수송기기, 에너지신산업, 농생명바이오를 선정했다. 11월에는 도-시군-대학-교육청-연구기관-기업 등 17개 기관이 참여하는 '지역협업위원회' 구성을 마쳤다.

이후 올해 2월 3일 교육부가 RIS 공모계획을 공고함에 따라 핵심분야 도 관련부서, 연구기관, 대학 관계자 등으로 전담팀(TF)을 구성해 긴밀한 협력과 논의를 거쳐 공모를 준비해왔다.

나해수 전북도 교육소통협력국장은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을 통해 전북도 발전의 동력으로 삼을 계획이다"며, "아직은 예비선정에 해당하므로 3월 초 예정된 최종 선정 결과에 전북도가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도, 가장 한국적인 웰니스 거점 육성

문체부 웰니스·의료관광 융복합 클러스터 공모 선정

전북도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웰니스·의료관광 융복합 클러스터'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문체부는 웰니스와 의료 융·복합을 통해 관광산업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개별적으로 운영해오던 웰니스관광 클러스터와 의료관광 클러스터 지원사업을 통합하여 올해 신규로 웰니스·의료관광 융복합 클러스터 사업을 공모했다.

이번 공모사업에는 전국 9개 광역자치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서류심사와 최종 종합평가를 거쳐 전북을 비롯한 대구·경북(2개 지자체 연계), 부산, 인천, 강원, 충북 등 6개 지자체가 선정됐다.

전북도는 앞으로 3년간 국비 15억원을 포함한 총 30억원을 투입하여 전주, 진안, 임실, 순창을 중심으로 전통문화·음식·자연생태 등 지역의 우수한 웰니스관광 자원과 양한방 협진 의료서비스를 연계해 전북을 가장 한국적인 웰니스·의료관광 거점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는 민·관·산·학 협의체 구성과 의료 연계 지역특화 웰니스관광 상품 발굴,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통합브랜드 개발, 안심관광 케어서비스 지원, 국내외 홍보마케팅 등을 추진해 웰니스·의료관광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천선미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웰니스·의료관광은 대규모 관광객 유치와 지역관광 활성화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전북을 매력적인 융복합 웰니스·의료관광 목적지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3·1절 관계로
3월 1일자 신문 쉽니다.